학술동향
Research Trends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데 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와 인류 보편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프레데릭 바비에에 따르면 최초의 도서전은 인쇄술의 발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독일 서적상들이 갓 출간된 책을 전시하려고 행사장을 찾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오늘날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개의 도서전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미국 도서전(Book Expo America),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런던 도서전, 과달라하라 도서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서전의 순이다. 이 중에서 과달라하라 도서전은 스페인어권 출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서전으로 손꼽힌다. 지난 2008년에는 작가, 문학 에이전시, 도서관 사서, 서적상 등 17,260명의 도서전문인력과 40개 국가의 약 2,000개 출판사가 모이면서 60만 4천명의 방문객 기록을 세웠다(금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찾은 방문객의 두 배 이상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 중 하나인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de Guadalajara

과달라하라 도서전을 찾은 방문객들은 아흐레 동안 책의 세계에 흠뻑 빠지고 세계 각국이 생산해낸 최고급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을 관람하며 즐거워했다.

지난 22년 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론의 여지없는 지지와 명성을 획득한 과달라하라 도서전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종합 대학인 과달라하라 대학에서 1987년 탄생했다. 대학 차원의 사업으로서 도서전의 목표는 뛰어난 자원을 창출해 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실질적인 대학 활동의 한 부분으로 문화, 과학, 공학을 복원하고 보존하며 양성하는 것이다. 도서전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는 신간서적 전시, 음악, 춤, 야외연극 등 문화 공연, 독서교실, 작가 및 비평가와 함께 하는 좌담회와 문학, 교육, 번역, 미디어, 도서관학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엄청난 유명 인사들을 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를로스 푸엔테스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같은 작가들은 개회식뿐 아니라 시상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독자들은 위대한 작가의 서명이 담긴 책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과달라하라 도서전은 수준 높은 문학을 걸맞게 평가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일련의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1991년 과달라하라 대학이 제정하여 15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는 후안 룰

포 문학상은 한 작가의 문학적 여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니카노르 파라, 후안 호세 아레올라, 엘리세오 디에고, 훌리오 라몬 리베이로, 넬리다 피뇬, 아우구스토 몬테로소, 후안 마르세, 올가 오로스코, 세르히오 피톨, 후안 젤만, 후안 가르시아 폰세, 신티오 비티에르, 루벰 폰세카, 후안 고이티솔로, 토마스 세고비아, 카를로스 몬시바이스, 페르난도 델 파소 등 최고의 현대문학 작가 18명이 이 상을 수상했다.

소르 후아나 이네스 소설상은 1993년부터 스페인어권 여성 작가가 출간한 소설에 수여되는 특별한 상이다. 원고와 독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출판인에게는 1993년부터 출판공로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로는 아르날도 오르필라 레이날, 호아킨 디에스-카네도, 네우스 에스프레사테, 쿠키 밀러와 다니엘 디빈스키, 헤수스 데 폴란코, 베아트리스 데 모우라, 앙투완 갈리마르, 호르헤 에랄데, 프란시스코 포루아, 로베르토 칼랏소, 모건 엔트리킨, 크리스티앙 부르구아 등이 있다.

또한, 과달라하라 도서전은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다른 문화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멕시코가 주빈국 자격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한 이듬해인 1993년부터, 과달라하라 도서전은 자국이나 자기 지역의 가장 뛰어난 출판물 및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특정 국가나 지역을 주빈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래서 금세기에는 스페인(2000), 브라질(2001), 쿠바(2002), 퀘벡(2003), 카탈루냐(2004), 페루(2005), 안달루시아(2006), 콜롬비아(2007), 이탈리아(2008)가 주빈관 자격으로 도서전을 빛냈다. 2009년 주빈관인 로스앤젤레스는 문학, 연극, 춤, 음악, 조형예술, 영화 등 현대예술 각 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과 함께 출판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

2009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과달라하라 도서전의 주요인물로는 2006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 후안 룰포 문학상 수상 예정자인 베네수엘라 시인이자 수필가 라파엘 카데나스, 고희를 맞아 기념행사가 거행되는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 최근작인 소설 『에덴동산의 아담』(Adán en Edén, 알파과라 출판사, 2009)의 출판기념식을 열고 또 독립 200주년 기념 포럼 "이제, 마침내 우리는 정체성을 찾았는가?"를 주관하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후안 카를로스 오네티 추모행사를 주도하고 신간 『삶과 자유』(La libertad y la vida)와 함께 참가하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현대 문학',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로운 문학의 경향', '국제도서전의 독일어', '퀘벡 문학' 등 상설전시 자격을 얻은 국가 및 지역에 할당된 행사를 비롯해 '국제 인디오 작가 모임', '상호문화성에 관한 대담' 등 국제적인 차원의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가 다루어지며, 물론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현 사회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이 할애될 것이다.❑

[박세형 옮김]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데 윤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부교수